

세종대학교 2024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예시 답안

1. 제시문(가)의 밑줄 친 아버지의 '신념'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가)에서 아버지는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실리적이라는 아들의 설득에도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자 한다. 아버지의 신념은 첫째, 땅은 이해를 따져서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땅은 대대로 조상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공들여 이룩해 놓은 것이므로, 한때의 금전적 이해를 따져 팔거나 돈놀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땅은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며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에 사는 지주들이 땅문서만 쥐고서 농사는 남에게 맡기거나 땅을 가꾸는 데 야박하여 땅이 망가진다고 하며, 설사 자신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지주가 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느르지논이나 독시장발 같은 기름진 땅을 가격을 보고 팔기보다 문보나 덕질이 같은 농사짓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것은 땅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신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77자)

2. 제시문(다)의 주장을 요약하고, 이 주장을 제시문(가)와 (나)를 각각 활용하여 반박하시오.(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다)는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다르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치 있는 삶은 타인의 평가에 무게를 두는 삶의 방식이어서 자칫 자신의 행복을 간과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예로 사람들이 작고 예쁜 초콜릿보다 바퀴벌레 모양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 성적에 맞추어 대학이나 전공을 결정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이러한 결정이 합리적 선택이기는 하지만, 행복보다 타인의 평가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모양이 예쁜 것보다 크기가 큰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는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합리성 역시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합리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크기는 작더라도 예쁜 것을 먹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의 주장은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일반화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반드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가)의 아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라는 점에서 가치 있는 삶이고, 병원 운영이 잘 되어 확장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의사로서의 그의 삶이 불행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버지 역시 평생 조상의 땅을 지키며 농부로 살아온 것을 가치 있다고 느끼며, 또 그러한 삶을 흡족히 여긴다는 점에서 행복한 삶이라 하겠다. 가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 타인의 평가일 필요도 없다. (가)의 아버지 역시 신념에 따라 스스로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은 타인의 평가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행복을 간과할 수 있다는 (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893자)